

2021년(FY2020) 지방재정분석결과와 시사점

지방재정분석제도 개요

전국 자치단체 재정상황을 종합분석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('98~)

- (분석대상) 243개 전국 지방자치단체(17개 시·도, 226개 시·군·구)
- (분석방법) 재정건전성·효율성·계획성 3개 분야 13개 본지표 및 23개 참고지표를 이용하여 자치단체 비교 및 단체별 세부분석 실시
- (결과활용) 재정분석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, 필요에 따라 재정진단·컨설팅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모니터링 자료로 활용

'21년도 지방재정분석 결과

1) 분야별 결과 총평

재정건전성 :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적극재정으로 적자전환, 채무비율 감소추세

- (재정수지) 확장적 재정운영 기조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으로 적자 전환
- 통합재정수지비율 : ('17)5.03% → ('18)3.55% → ('19)1.90% → ('20)-2.23%
- (채무관리) 신규 채무발행 자제 및 연차별 상환계획 등 채무관리 노력으로 관리채무비율 하락추세 지속 (지방채무규모는 3.6조 ↑)
- 관리채무비율 : ('17)8.06% → ('18)7.35% → ('19)6.54% → ('20)6.28%

재정효율성 : IT기술 접목 지방세징수체계 도입 등 재정효율성 개선

- (징수관리) 국세·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및 모바일고지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 징수노력으로 6년 연속 지방세징수율 상승
- 지방세징수율 : ('17)97.69% → ('18)97.80% → ('19)97.82% → ('20)98.17%
- (지출관리) 복지지출, 일자리사업 등으로 지방보조금 및 출자·출연·전출금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세출대비 비율은 소폭 감소
- 지방보조금(비율) : ('19)17.2조(5.88%) → ('20)20.6조(5.26%)
- 출자출연전출금규모(비율) : ('19)9.2조(2.40%) → ('20)10.4조(2.28%)

재정계획성 :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양호, 이불용액비율 감소

- (재정계획) 중기재정계획상 정책사업비 예산반영비율은 100.16%로 양호, 지방세는 취·등록세 증가 등으로 세입추계보다 10.27% 추가징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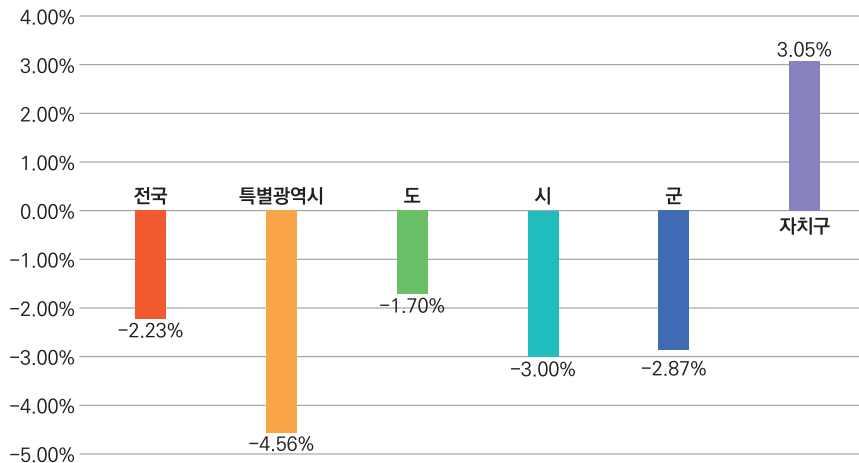
- (재정집행) 이·불용액비율(5.72%)이 신속집행 지속 추진 등으로 전년대비 2.07%p 감소하는 등 집행실적 개선
 - 사고이월액 : ('19)6.6조 → ('20)6.7조
 - 불용액 : ('19)24.6조 → ('20)22.7조
- (자치단체 유형별 비교) 이불용액 비율은 전년대비 집행실적이 개선된 반면, 중기재정계획 및 세수오차비율은 악화

2) 재정건전성 분석 결과

가) 재정건전성 분야

수지관리

- (통합재정수지비율) -2.23%로 전년대비 4.13%p 감소, 통합재정수지는 '19년 흑자(6조원)에서 '20년 적자(-8.7조)로 전환(14.7조 ↓)
 -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·소상공인 지원,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지출이 증가한 결과
 - 자치단체별로 볼 때, 특광역시와 기초시의 적자폭이 전국평균대비 크게 나타남



- (관리채무비율) 6.28%로 전년대비 0.26%p 하락, 지방채무잔액(BTL지급잔액 포함)은 32.9조원으로 전년대비 3.6조원 증가
 - 신규 채무발생 자제·관리 및 연차별 채무상환계획 이행 등 지자체 채무관리 노력이 주요 개선원인
- (통합유동부채비율) 26.27%로 전년대비 3.61%p 상승, 통합유동부채 규모는 39.8조원으로 전년대비 4.6조원 증가
 -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통합유동자산은 감소하고 통합유동부채는 증가하여 통합유동부채비율 증가
 - 통합유동부채 전년대비 4.6조(13.07%) 증가, 유동자산 3.8조(△2.42%) 감소
 - 자치단체, 출자·출연기관 및 공사·공단 모두 유동부채 각 10% 이상 증가

■ 유동부채 현황 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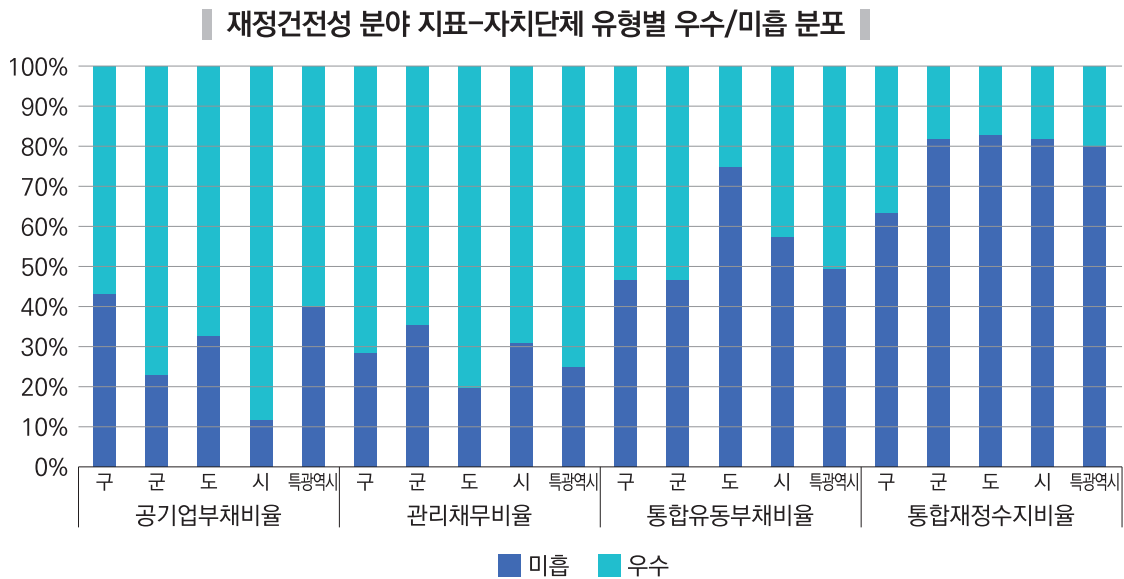
구분	2018	2019	2020
자치단체	13.5조	14.8조	16.9조(+14.19%)
지방공사·공단	16.9조	16.5조	18.4조(+11.52%)
출자·출연기관	3.5조	3.9조	4.5조(+15.38%)

공기업관리

- (공기업부채비율) 공기업부채비율은 34.94%로 전년대비 0.50%p 증가, 지방공기업 부채총액은 54.4조원으로 전년대비 1.9조원 증가
 - 코로나19로 인한 요금 감면 등 직영기업(상하수도) 요금현실화율 하락, 도시철도공사 경영적자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0.50%p 소폭 증가
 - 부채감축, 자기자본 확충 노력으로 부채비율 지속 감소추세

자치단체 유형별 우수/미흡 지표 기준 비교

- 자치단체 유형별로 통합재정수지와 통합유동부채 등 전년대비 건전성이 저하된 반면, 공기업부채비율과 관리채무비율은 개선



※ 우수(미흡) 기준 : 전년대비 지표 개선(악화)과 자치단체 유형평균 대비 개선(악화) 동시 충족

나) 재정효율성 분야

수지관리

- (세입관리) 자체수입비율 27.20%, 전년대비 1.41%p 감소
 - 지방세·세외수입액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, 세입결산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상대적 비율이 감소한 결과
 - 지방세 징수율 주요 개선요인은 지방소비세 및 취득세 증가
 - 세외수입 비율 하락('19년 4.09% → '20년 3.58%)의 주요원인은 임대료 감면 등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(-15.7%p), 공공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(-35.4%p) 등

구분	2019	2020
자체수입비율	28.61%	27.20%
지방세수입 비율	24.52%	23.62%
세외수입 비율	4.09%	3.58%
자체수입증감률	7.78%	17.60%
지방세수입 증감률	7.63%	14.07%
세외수입 증감률	8.67%	3.53%

- (징수관리) 지방세징수율은 98.17%으로 전년대비 0.35%p 소폭 상승, 지속적인 징수 노력으로 6년 연속 지방세징수율 상승
 - ('17)97.69% → ('18)97.80% → ('19)97.82% → ('20)98.17%
- 체납액관리비율 1.80%로 전년대비 0.35%p 하락, 지방세체납액은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체납액은 경제상황 악화, 납부지연 등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소폭 증가('19년 2.8조 → '20년 3조)

구분	2019	2020
체납액관리비율	2.15%	1.80%
지방세 체납액관리비율	1.27%	1.01%
세외수입 체납액관리비율	0.88%	0.79%
체납액증감률	-2.06%	0.86%
지방세 체납액증감률	-4.24%	-5.62%
세외수입 체납액증감률	1.27%	6.48%

세출효율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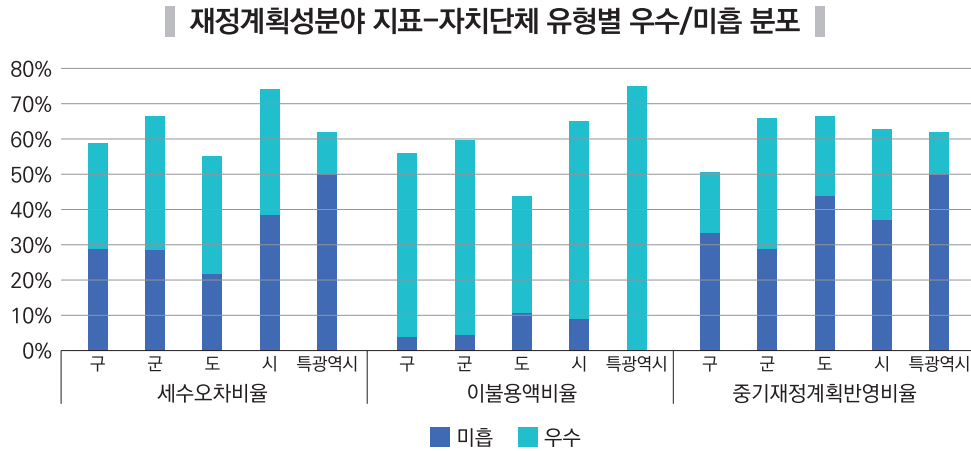
- 지방보조금비율, 출자·출연·전출금비율 모두 전년대비 감소
- 자체경비는 재해·재난복구 등 지역현안 대응으로 전년대비 증가
- (외부지원) 지방보조금비율 5.26%, 전년대비 0.62%p 감소하였고, 출자·출연·전출금비율 2.28%로 전년대비 0.12%p 감소
 - 지방보조금비율 주요 개선요인은 민간행사 취소로 인한 보조금 감소(0.42조 ↓)
 - 출자·출연·전출금은 신규 재단 설립,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13.04% 증가('19년 9.2조 → '20년 10.4조)
 -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및 일몰제, 출자·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
- (내부경비) 지방의회경비,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하는 자체경비비율은 9.48%로 감소, 자체경비는 전년대비 4.51%p 증가
 - 자체경비는 코로나19로 여비가 감소한 반면, 코로나19 재난 관련 사업의 현안대응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증가

다) 재정계획성 분야

- (재정계획)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은 100.16%로 전년대비 1.8%p 감소
 - 과다편성 주요원인은 국(시)비보조사업의 확대, 생활 SOC 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등 보조사업지출 증가
 - 세수오차비율 89.73%로 지방세 세입결산액 대비 당초예산·최종예산액을 평균 10.27% 과소추계, 전년대비 오차율 2.78%p 상승
 - 지방세수 과소추계의 주요원인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사전예측 미흡
- (재정집행) 이·불용액비율 5.72%, 신속집행 추진 등으로 전년대비 2.07%p 감소하여 집행실적 개선
 - 불용액 중 정책사업비의 비율이 90.4%로 추경을 통해 연내 집행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세출계획을 재편성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필요

자치단체 유형별 우수/미흡 지표 기준 비교

- 자치단체 유형별로 이불용액 비율은 전년대비 계획성이 개선된 반면,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세수오차 비율은 악화



※ 우수(미흡) 기준 : 전년대비 지표 개선(악화)과 자치단체 유형평균 대비 개선(악화) 동시 충족

지방재정분석결과 시사점

정부역할 확대에 따른 유동성 및 세출집행의 변동 폭 확대

-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및 유동부채비율 등의 유동성 지표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변동되었고, 이러한 재정상태가 지속되는지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 필요
- 반면,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대재정정책 기조 내에서 세출 집행의 효율적 노력으로 징수관리(징수율, 체납액관리 등), 경비관리(지방보조금비율, 자체경비비율 등), 이불용액비율 등 지표는 개선

재정계획성 → 재정효율성 → 재정건전성의 선순환 재정운용 활동의 체계 마련 필요

- '20년도 재정분석결과는 코로나19 시기의 세입과 세출의 격차가 큰 폭으로 진행되에도 불구하고, 재정효율성의 징수 및 비용관리 등 재정운용결과는 지속적으로 개선
- 경기변동이 큰 시기일수록 정부의 재정활동은 정교한 재정계획의 토대에서 출발하여, 재정계획-세출집행-재정 운영결과의 선순환 과정의 연계 강화 필요
- 관행적으로 수행되는 보수적 세수추계와 부동산 가격에 따른 세원의존성 등의 세입구조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 및 세수추계 등의 계획성 분야부터 체계적 활동의 변화 필요

참고자료 2021년(FY2020)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및 자치단체별 보고서

내용문의 전성만(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, sungmanjun@krila.re.kr, 033-769-9879)

지난호 재정분권 1단계 전환사업의 재정책임성 측면에서의 변화(김성주 연구위원)

원문 보기

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brief@krila.re.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